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11.(목) 12:00
(지면) 2026. 6. 12.(금) 조간

본격적인 더위 시작, 선풍기와 에어컨 안전하게 사용해 화재 예방하세요!

- 최근 5년간 선풍기·에어컨 화재 2,184건,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아
- 화재 예방을 위해 사용 전 점검 철저, 사용 중에는 과열 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여름철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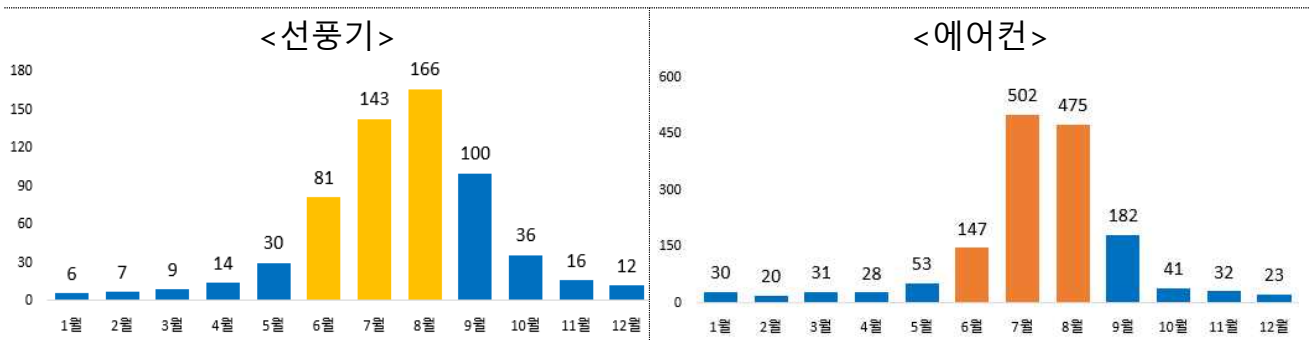
최근 5년(2021~2025년)간 선풍기와 에어컨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184건이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사이에 집중됐다.

※ 연도별 선풍기, 에어컨 화재 현황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선풍기	119	98	102	143	158	에어컨	255	273	293	387	356

< 2021~2025년 월별 선풍기·에어컨 화재 현황 >

(단위: 건)



[출처: 국가화재정보센터, 소방청]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선풍기와 에어컨 모두 전선이 눌리거나 훼손되면서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나 사용·설치 부주의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선풍기 화재의 경우 기계적 원인이 차지하는 비율(22%, 136건)이 에어컨(7%, 107건)보다 15%p 높았다.

< 2021~2025년 원인별 선풍기·에어컨 화재 현황 >

(단위: 건)



[출처: 국가화재정보센터, 소방청]

선풍기와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 선풍기

보관된 선풍기를 꺼내 쓸 때는 먼저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옷가지나 수건 등이 모터의 송풍구를 막지 않도록 유의한다.

선풍기 전선이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이지 않도록 하고, 전선을 과도하게 잡아당기는 행위도 피한다. 또한,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 제품을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에어컨

에어컨과 실외기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먼저 살핀다. 전력 소모가 많은 에어컨 전원은 과열되기 쉬우므로, 제품 설명서 기준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한다.

실외기가 과열되면 쌓인 먼지만으로도 불이 날 수 있다. 에어컨 사용 전에는 반드시 실외기 먼지를 제거하고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실내에 설치된 실외기는 창문을 열어 통풍에 유의하고,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일수록 먼지와 습기에 더욱 취약하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에어컨에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진동, 타는 냄새가 날 때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다.

특히, 선풍기와 에어컨을 장시간 계속 사용하면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크다. 제품의 시간설정 기능(타이머) 등을 활용해 틈틈이 쉬어주고, 밀폐된 공간일수록 자주 환기한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각 가정에서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냉방기 사용 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치선 (044-205-4510)
		담당자	사무관 송정호 (044-205-4505)





선풍기 화재예방 안전수칙



사용 전 먼지 제거 후,
소음, 냄새 등 문제 확인 후 사용



선풍기 모터 송풍구를 막지 말고
모터 부분이 뜨거우면 잠시 사용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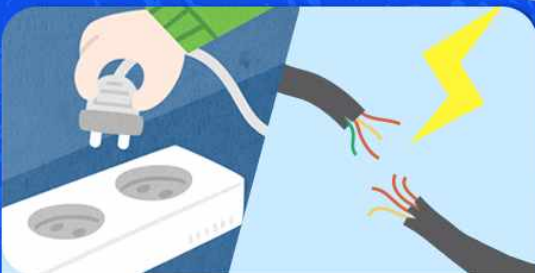
전원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하고
자리 비울 때는 전원 끄기



조작 버튼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억지로 조작하지 말고 점검 후 사용



에어컨 화재예방 안전수칙



에어컨은 단독콘센트 사용하고
전선이 훼손된 곳 없는지 확인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에어컨 가동 시 통풍 잘 되도록 관리



에어컨 내부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



팬의 날개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소음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점검 의뢰